김신 '환상서곡 제주' 관악작곡콩쿠르 1위

국제관악제 봄 시즌 연계 제주 민요 주제 관악 창작곡 23편 중 6편 결선 무대 경연 최고상은 '너영나영' 모티프 2위 조주연, 3위 정제호 입상

제5회 제주국제관악작곡 콩쿠르 입상자. 왼쪽부터 정제호·김신·조주연 작곡가. 진선희기자

김신 작곡가의 '환상서곡 제주'가 제5회 제주국제관악작곡콩쿠르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에서 신규 분야로 공식 승인된 이래 치러진 이 대회에서 김신 작곡가는 '너영나영'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주도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과 연계한 이번 콩쿠르에서는 40세 미만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주 민요 주제 관악 창작곡을 공모했다. 지난 2월 국내외 23편이 접수됐고 이 중에서 6명의 작품이 결선에 올랐다.

결선 무대는 지난 21일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졌다. 이동호가 지휘하는 도립 서귀포관악단의 연주로 6편이 차례로 공개됐고 심사 결과 1위 김신 작곡가에 이어 2위는 '해녀노래'와 숨비소리를 녹여낸 조주연의 '잠녀', 3위는 '해녀노래'와 '웡이자랑'을 이용한 정제호의 '어멍의 바당'이 각각 선정됐다. 콩쿠르 상금은 1위 미화 6000달러, 2위 4000달러, 3위 2000달러다.

강철호 심사위원장은 시상식에서 "결선 작품들은 제주 민요라는 전통적 소재를 단순한 인용에 머무르지 않고 작곡가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확장하는 시도가 돋보였다"며 "7명의 국제 심사위원단이 음악적 완성도, 창의성, 작품성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이 끝난 뒤 만난 김신 작곡가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되고 제주도와 한국을 넘어 세계 모두가 하나 되어 평화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며 "'너영나영'은 이런 메시지 외에도 세계인들도 잘 소화할 수 있는 음악적인 선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작업 배경을 전했다.

그는 이미 제네바 국제콩쿠르 1위,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콩쿠르 교향악 작곡 부문 심사위원 만장일치 우승, 중앙음악콩쿠르 1위 등 국내외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작곡가다. 2022년엔 한국음악상 젊은 음악가상을 수상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졸업했고 영국 왕립음악원 석사 과정을 거쳐 현재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쪽지

가수 정원 부산 활동 본격

제주어 가수 양정원 씨가 부산에서 새로운 음악 인생을 시작한다. 양정원 씨는 "1인 기획사로 홀로서기에 나서며 활동명을 '정원'으로 변경했다"며 "제 노래가 대중에게 편안한 쉼터인 '정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

그는 신곡 '부산역', '부산아지매'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부산 활동을 알렸다. '부산역'은 타지에서 새로운 활동을 다짐하는 자전적 이야기이자 부산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경쾌하면서도 묵직한 감동을 선사하고 싶은 바람을 실은 곡이다. '부산아지매'에선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흥겨운 리듬이 어우러져 강인하게 삶을 일궈온 어머니들의 생명력을 노래한다.

가수 정원은 "제주의 바람이 내 음악적 뿌리였다면, 부산의 역동적인 파도는 새로운 원동력"이라며 "부산 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진정성 있는 노래로 제2의 고향 부산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거리 공연자 모집

서귀포시는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활기찬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6년 서귀포시 버스커(거리 공연자) 모집' 신청을 받고 있다.

모집 분야는 보컬, 댄스, 밴드, 기악 등 공연 장르다. 서귀포를 무대로 버스킹이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로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서귀포시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등기)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효율적인 인력풀 운영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팀) 중 하나를 택해야 하고 대표 장르도 한 가지를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버스커 모집을 통해 문화 예술 진흥 정책의 기초 자료, 행사·축제·공연과 자유버스킹 시 참여 기회 제공, 장르별 버스커 추천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참고. 진선희기자

'섬의 기억, 새로운 상상' 그림책에

문정인·이강인·정지원 작가 제주문학관 내일부터 특별전

그림책 작업을 하는 청년 작가들의 전시가 열린다. 오는 24일부터 제주도립 제주문학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펼쳐지는 '섬의 기억, 새로운 상상' 특별전이다.

제주 그림책의 문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 전시에는 정지원, 문정인, 이강인 작가가 초대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주라는 장소를 바라보며 자연과 공동체, 삶과 선택, 생명의 관계를 섬세한 이미지와 서사로 풀어내는 작업을 해 왔다.

제주 출신 문정인 작가는 프랑스에 살며 작품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첫 번째 그림책 '이길 저길'로 2023년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된 이력을 지녔다. 올해 프랑스, 독일, 한국에서 해녀인 작가의 할머니 이야기를 그린 그래픽 노블을 출간할 예정이다.

이강인 작가도 제주 출신으로 제주 자연과 신화, 계절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생명을 그린다. 지난해 펴낸 '고사리 봄봄'에서는 꽃이 피고 생명이 돋아나는 순간을 통해 자연의 순환과 삶의 지속성을 이야기했다.

정지원 작가는 제주의 자연과 지역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동시대의 사회적 질문을 품은 작업을 하고 있다. 2022년 첫 그림책 '물줄기를 따라'에는 강정마을의 풍경과 환경 변화 속에서 마주한 감정이 담겼다.

전시장은 그림책 원화를 중심으로 작가 아카이브, 북아트, 포토존, 참여형 체험존으로 구성했다. 개막식은 첫날 오후 3시 제주문학관 1층 북카페. 이때는 이강인·정지원 작가의 작품 해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는 9월 8일까지 계속된다. 관람료 무료. 진선희기자

영화觀 프로젝트 헤일메리

뜻밖의 우정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

다름, 다름, 다름은 어느새 틀림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나에게 등 돌린 것처럼 나 또한 타인과 세상에 대한 기대 없이 살기 마련이다. 기대가 없이 산다는 것보다 슬픈 지속이 또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이 무너질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외톨이였던 한 남자 그레이스(라이언 고슬링)가 난데없이 도착한 우주 망망대해에서 시작하는 영화, 앤디 위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프로젝트 헤일메리'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막대한 자원이 투입된 SF 블록버스터다. 원작 소설가인 앤디 위어의 전작 '마션'의 전세계적 성공 이후 또 한 번 한 남자의 고군분투가 우주에서 펼쳐진다. 태양이 죽어가는 징조를 발견한 후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원이 됐던 그레이스는 말 그대로 등 떠밀리듯 그것도 혼수상태로 우주로 보내진 이다. 깨어났을 때 생존자는 자신뿐이고 기억은 희미하다. 무엇을 믿고 어디로 향해야 할까. 기대 없이 살아왔던 외톨이에게 우주는 어떤 기댈 구석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낙관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레이스와 관객들 앞에 영화가 내놓는 것은 '뜻밖의 우정'이다. 여기 나와 같은 목적으로 우주를 향한 존재가 있다는 것. 비록 거미를 닮은 낯선 돌멩이의 형상을 하고 있더라도.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우주라는 넓은 공간을 무대로 한 헐리웃 블록버스터의 꼴을 풍성하게 갖춘 작품이지만 의외로 그 안에서 풀어내는 이야기는 소박하고 깊다. 너와 나에서 우리가 되는 비밀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불통 상태에서 소통 상태로 끝내는 영원히 우주에 새겨질 우정으로 향하는 그레이스와 록키의 동행이 '헤일메리 프로젝트' 서사의 중심이다. 각기 다른 곳에서 왔기에 다른 방식의 배움이었겠지만 서로의 지식과 기지를 합쳐 문제를 풀어내고 점차 성과를 만들어간다. 답이 없던 공간에 채워 넣은 수식들은 모두 두 사람의 관계의 진전에서 기인한 것들이기에 그것을 이 두 존재의 우주 교환 일기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둘은 우주를 구한 영웅이지만 영화 속에서 그 상찬과 환호는 중요하지 않다. 프로젝트의 성료로 인한 두 사람의 이별이, 말하자면 어찌할 수 없는 관계의 종말이 우주 영웅들의 귀환보다 더 큰 감정으로 다가온다.

두 시간 반을 넘기는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러닝타임 속에서 나는 자주 울컥했고 몇 번 훌쩍였다. 그러다 영화의 엔딩 즈음에서는 이상하게 외롭지 않다는 생각으로 행복해졌다. 나 혼자 세상에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내가 정해둔 그 세상 밖을 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막연하기만 저 우주 어딘가에 나와 친구가 될 존재가, 막역한 사이가 될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에 설레기도 했다. 그레이스와 로키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불통의 구멍을 뚫는 소통의 언어가 될 것이라고 믿어 본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